소년단

1962 6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시)

우등'불 두리에서

류 연옥

우등'불
우등'불
그윽한 6월의 밤
동산 마루에 타오르는 우등'불

우등'불 두리에서
분단 아이들 이윽히 바라보네
그 옛날 장백의 밀림 속에서
싸우며 자라는 아동단원들,

눈보라 하늘 땅을 삼킬듯
험한 령 넘고 넘는 고난의 행군
온 몸이 꽁꽁 얼어 들어도
빨찌산 찾아 달리는 아동단원들,

불현듯 원쑤의 사나운 총칼 막아나서도
슬기로 뚫고 나갔네.
통신을 지닌 심장 날개돋쳐 날았네.
빨찌산이 지펴준 혁명의 불씨를 안고…

오늘도 그 불씨 번지여 가네,
아동단원의 굳세인 그 뜻을 닮아
모범 분단 꾸려가는 아이들 가슴 가슴에
꽃송인양 붉게 타오르네

밀림 속 우등'불 두리에서
꽃피는 세월 우렸이 바라보듯
당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이 밤 조국의 래일을 보네

우등'불
6월의 우등'불
향긋한 과일나무 동산 마루에서
새날의 노래 속에 타오르는 우등'불…

소년단 1962년 6호 내용

황 순희

5월도 거의 가는 어느 날 저녁이였습니다. 나는 대동강 유보도를 거닐던 한 떼의 아이들에게 끌리어 휘늘어진 수양버들 아래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아이들이였습니다.

우리들은 평양과 대동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학교에서 있은 재미 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아동단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요.》

아이들은 조르듯 내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새 교복 차림에 단정하게 맨 그들의 붉은 넥타이는 대동강 산들바람에 팔랑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마치도 아동단 시절에 되돌아 가 동무들과 한 자리에 모여 앉은듯 하였습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아동단원 리 영호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 ×

1932년 연길현에서 있은 일입니다. 그 때 우리 분대에는 13 세 난 리 영호라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영호는 공부도 잘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목공 기술도 남달리 있었습니다. 그는 아동단 조직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수행하고야 마는 동무였습니다.

가을이면 그 때 우리 아동단에서는 너삼으로 바를 꼬아 유격대

에 보내는 부모들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 해 가을에도 너삼 베려 다니던 우리들은 화련리로 가는 산'골짜기에 너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곳 지형을 잘 아는 영호가 너삼 있는 곳을 알아 보려 먼저 화련리로 떠났습니다.

영호가 고개 마루에 올라 섰을 때였습니다. 왜놈 앞잡이 최가란 놈이 경찰 3 명과 같이 고개를 올라 오고 있었습니다.

영호를 발견한 최가 놈이 무엇이라 경찰놈들과 수군덕거리더니 놈들은 총질을 하며 영호에게로 달려 들었습니다.

언젠가 삐라 공작을 나갔던 영호 동무는 이 최가 놈에게 발각되였었는데 재빨리 피해 무사히 돌아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앞잡이 놈과 경찰 놈들은 영호를 놓칠세라 마구 총질을 하며 쫓아 왔습니다. 영호 동무는 그만 놈들의 총알에 왼 다리를 부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 사이를 누비며 뛰고 또 뛰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었습니다. 뒤 쫓아 오던 놈들은 하는 수 없이 되돌아 가고 말았습니다. 부상 당한 영호는 산 중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영호는 피를 흘린 탓으로 정신이 아찔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직의 위임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참고 견디며 끝내 너삼밭을 알아 냈고 부상 당한 몸을 끌며 너삼을 한 짐 해 지고 돌아 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영호의 상처는 나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호는 20 리나 되는 결망'골로 통신 쪽지를 가지고 련락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결망'골까지 5 리를 앞두고 다리를 쉬던 때였습니다.

말탄 왜놈 두 놈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영호의 몸을 수색하며 《련락을 가지? 비밀 쪽지를 내놓아!》 하고 으르렁댔습니다. 영호의 온 몸을 뒤지

고 난 놈들은 마지막으로 그의 짚신을벗겨 칼로 오리오리 찢어보는 것이였습니다. 그 바람에 짚신 바닥에 감추었던 통신 쪽지가 들어 났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통신 쪽지가 놈들의 손에 들어 가면 혁명의 비밀이 들어 나는

판입니다. 영호는 주머니 속의 빼트칼을 꺼내여 번개 같이 그 놈의 낯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비밀 쪽지를 집어 삼키고 산으로 냅다 뛰였습니다. 빼트칼을 맞은 놈은 두 손으로 낯짝을 싸 쥐고 쓰러진 채 비명을 지르고 다른 한 놈은 영호를 따라 오며 총질을 하였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왜놈들이 욱하고 몰려 왔습니다. 영호는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유격대는 어데 있느냐?》, 《누가 쪽지를 주더냐?》, 《말하면 고운 옷과 맛 있는 과자도 준다.》

왜놈들은 영호에게 고문을 들여대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개들과는 말하지 않는다.》

그 때마다 영호는 이 한 마디로 비밀을 지켰습니다.

악에 바친 놈들은 전기 고문을 비롯하여 별의별 악독한 고문을 다하였습니다.

(내가 혹시 놈들의 고문에 정신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혁명의 비밀을 말하여 혁명에 큰 손해를 주게 된다면…) 여기까지 생각한 영호는 비상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아동단원이다. 아동단원은 혁명의 비밀을 말할 줄 모른다.》

그는 이렇게 왜놈들을 향해 웨치고 이'발로 자기 혀를 끊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더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두 주먹은 굳게 쥐여져 있었습니다.

아동단원 영호처럼 조직에 충실하리라! 소년단원들의 두 눈은 새'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림 이야기

첫 행군의 날에

—항일 빨찌산 참가자 조 명선 아저씨의 회상기에서—

아저씨가 어렸을때 살던 베개'골은 조선인 부락이였다. 일본 경찰과 《국경 수비대》, 《토벌대》, 헌병들이 욱실거리는 장백현 소재지와 이도강에서 불과 30~ 40 리 밖에 되지 않는 곳이여서 놈들의 감시와 탄압이 아주 심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님은 여기에 정치 공작원을 수시로 보내여 혁명 단체를 조직 하셨고 인민들에게 반일 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지도 하에 이 곳에 아동단도 조직되였다. 명선 아저씨는 아동단에서 생활하다 마침내 빨찌산 대오에 참가하게 되였던 것이다.

1) 1936년 여름 어느 날이였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베개'골에 찾아 온 유격대원들과 한 자리에 마주 앉아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투쟁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고 혁명 가요도 불렀다.

2)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두익이는 부락 청년들과 함께 유격대원들을 따라 나섰다.

《두익아! 너 어디로 가니?》

《김 일성 장군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됐다!… 이제부터는 나도 일본 놈과 싸우는 소년 유격대원이다!》.

3) 나는 유격대 공작원 아저씨에게 《나도 일본놈과 싸우는 소년 유격대원이 될래요.》하고 막 졸라댔다. 유격대 아저씨는 혁명가요집 한 권을 주면서 《또 올테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아동단 공작도 잘 해라!》하고 타이르는 것이였다.

그 때 나는 14 세였다.

4) 유격대원들이 다녀 간 후 나는 매일 노래집을 펼치고 외워 보군 하였다. 이럴 때마다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유격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치밀군하였다. 나는 그 날을 위해 아동단 공작에 더 충실하기에 힘썼다.

5) 이렇게 1 년이 지난 여름 어느 날이였다.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한 유격대원들이 아래'마을에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곧 유격대 아저씨들을 찾아 갔다.

《이번에는 입대시켜 주십시요》하고 졸라댔다.

6) 드디어 유격대에 입대하게 된 나는 새 모자 새 신발에 배낭까지 받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유격대원들과 함께 행군의 길을 떠났다 (김 일성 장군님과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반드시 칭찬 받는 소년 중대원이 되겠어요) …나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7) 그러나 나 어린 나에게 행군의 길은 힘겨웠다. 밀림 속 나무 가지와 가시 덤불에 얼굴을 찔리우기도 했고 어둠'속 바위'돌에 걸려 자주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럴 때마다 《어디 상하지 않았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니》 하며 유격대 아저씨들은 나를 돌봐 주며 부축해 주었다.

8) 우리는 드디여 밀영에 도착하였다. 발은 부르터서 물'집이 생기고 손과 얼굴은 온통 긁히고 몸은 불 속에 잠긴 듯 했다. 휴식을 하는데 누가 곁에 와서 말했다.

《명선 동무! 사장 동지께서 동무를 찾으시니 어서 가 보오!》

9) 《명선이가 이제야 왔군 자! 어서 여기 와 앉으라구》.

인자하신 웃음을 담으신 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손을 잡으시더니 식탁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

《어때! 행군은 어른들에게도 힘이 드는데 명선이는 더 할 거야.》

《괜찮습니다. 》

《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힘들 때에는 동무들의 방조도 받을 줄 알아야 해…》

원수님은 나의 속을 빤히 꿰뚫어 보시는 것만 같았다.

이 때에 식사가 들어 왔다.

《명선이는 올해에 열 다섯 살이라지… 누구보다도 집 생각이 더 날거야… 자! 어서 들라구!》

나의 등을 만져 주시며 말씀하시는 어버이보다 더 깊은 원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새 힘이 솟았다.

(이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이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힘 들고 괴롭다 하랴!)

나는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더욱 더 굳게 다졌고 또 그렇게 싸우기에 힘썼다.

우리 반에 와 보세요

향화 동무는 평양 동흥 중 학교 6분단 1반 반장이예요.

언제나 반 동무들과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반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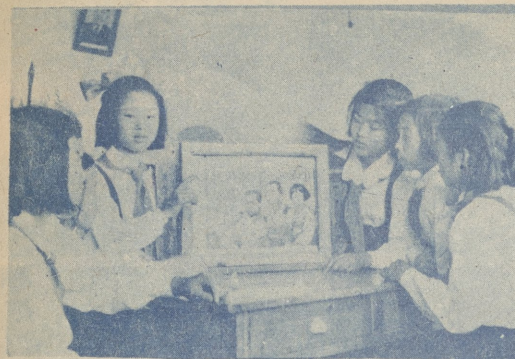
그리고 반 동무들을 잘 도와 주고 힘든 일에는 늘 먼저 나서서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동무예요. 반 동무들은 모두가 그의 모범을 따라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남 먼저 찾아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였고 학습에서도 일곱 동무 모두가 최우등이 되였습니다.

《우리 반에 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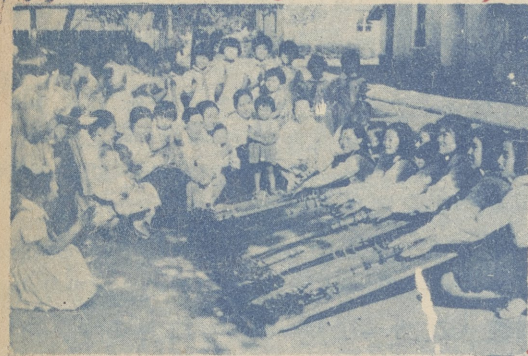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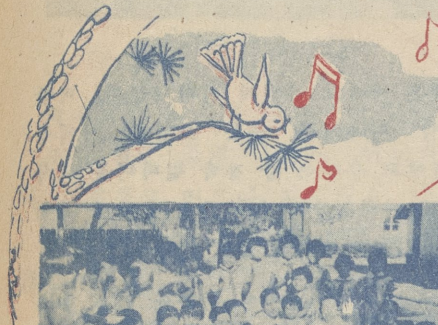
향화 동무네 반 동무들은 우리들을 이렇게 초청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그들을 찾아 가보기로 합시다.

1) 아침이 밝았어요. 단정한 옷 차림에 책 가방을 들고 나선 우리 반 동무들은 혁명 가요를 소리 높이 부르며 이렇게 씩씩하게 학교로 가지요.

2) 쉬는 시간이면 모두가 뜀'줄을 가지고 조약운동을 하며 줄 넘기에 막 신이 나지요. 그러면 다음 시간 공부도 더 잘 돼요. 경숙이와 혜영이는 한번에 두바퀴씩 뛰는 뜀'줄 선수예요.

3) 우리는 자주 실험, 관찰, 견학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식물 관찰을 했어요. 오늘 식물 시간에 목질부의 구조를 배웠으니까요.

4)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혁명 투사들의 회상기 모임을 가진답니다.

혁명 전통 학습을 맡은 오 영배 동무는 늘 회상기 내용을 감명 깊고 재미 있게 이야기 해 주군 해요. 때로는 동무들이 한 제목씩 맡아 연구 발표를 하기도 하지요. 혁명 투사들의 회상기는 우리 생활의 교과서예요.

5)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유치원 동생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또박또박 새겨 쓴 《영예의 붉은 수첩》에는 혼자 한 일, 함께 한일, 아름다운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이 자꾸만 늘어 가지요.

6) 아빠트 마을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을 때면 우리들은 가야금을 타며 노래와 춤을 보여 드려요. 그리고 위생 선전도 하지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은 노래도 무용도 잘 하고 연설도 잘 한다고 칭찬이 대단해요.

7) 우리 반 동무들은 모두 재봉, 수놓이, 뜨개질 선수예요. 지금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에 내놓을 손수건, 꽃병 바치개, 벼개모, 앞치마등을 만들고 있어요. 동무들! 어때요, 우리 솜씨가 대단하지요.

8) 일요일의 하루는 정말 즐거워요.

전번 일요일엔 을밀대에 올랐어요. 아름다운 평양을 굽어 보며 대동강이며 모란봉이며 을밀대에 대한 력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작문도 짓고 그림도 그렸어요.

9) 우리들은 때때로 아버지 어머니들의 비참했던 지난 날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지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강 경숙 할머니를 모시고 일제 시대 지주놈들이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10) 토요일 저녁에 한 주일 동안에 있은 좋은 일 그릇된 일들을 갈라 내여 총화하지요. 그리고 서로 지혜를 모아 다음 주에 할 보람 있고 재미있는 계획을 세워요.

× × ×

동무들 우리 생활을 견학해 주어 고마와요. 전체 우리 반 동무들을 대표하여 여러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것을 아십니까?

대기란 무엇인가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기체를 대기라고 부른다.

대기를 형성한 공기는 주로 산소와 질소가 합쳐서 된 것이고 거기에 탄산가스, 아루곤 등 몇 종류의 기체가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에는 항상 얼마쯤의 수증기도 섞여 있다. 공기의 4분의 3은 질소이며 5분의 1은 산소이고 그 밖에 극히 적은 량의 아루곤, 탄산가스, 네온, 헤륨, 크립톤, 수소 등이 섞여 있다.

대기에 가득 차 있는 기체들은 지구의 인력에 의하여 표면에 모여 들고 있다. 표면에 가까운 층은 밀도가 크고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 갈수록 기체들은 적다. 이런 대기 층의 높이는 약 1,200*Km*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층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차례로 대류권, 성층권, 이온권, 분산권으로 되여 있다.

그의 일기

—평남도 순안군 남산 중학교단 제 14 분단에서—

본사 기자 김 준규

☆ 길'가에서

벽시계가 8 시를 알렸습니다.

조합 일을 끝낸 아버지, 어머니들이 돌아 오신지도 퍼그나 되였지요.

그런데 아직 조 영천 동무는 돌아 오지 않았어요.

《이 애가 오늘은 웬일이누 저녁 먹으려도 안 들어 오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다가는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방문을 열어 제끼고 밖을 내다 보십니다.

(모범 분단이 된다고 늘 자랑이더니 이 애가 또 공불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게군)

끝내 어머니는 저녁 밥을 싸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50 세가 지난 어머니는 단 하나 뿐인 영천이를 무척 사랑하지요.

누구네 집에서인지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뚝 그치더니 왁짝 떠들며 한물커리의 아이들이 헤여져 나옵니다.

아마 반실에서 공부하다 헤여지는 애들인가 봐요. 어머니는 거기에 영천이가 있지 않는가 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누군지 앞에 와서 꾸벅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응 너 기옥이구나 우리 영천이를 보지 못했니?》

《모르겠는데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 나와 함께 영천이네 반실에 가 보시자요.》

기옥이는 어머니가 든걸 두 손으로 덥썩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기옥 동무는 다른 반이지만 늘 학교에 찾아 와 선생님께서 영천이의 학습 정형을 알아 보고 가시는 이 어머니를 잘 압니다.

이 곳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어머니는 더 말리지 못하고 기옥이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 누구나 길'가에서 웃 어른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짐을 가지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꼭 모셔다 드리는 이들이니까요.

☆ 되·돌아 선 어머니

이날 점심 시간 때였답니다.

한참 동안 춤 추고 노래 하며 즐긴 영

천이네 반 동무들은 5 반 동무들과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꼴을 두 개나 넣고 너무도 좋아 와 소리치며 뛰여 나오는데

《인복 동무 〈옛'이야기 대회〉 준비를 했니?》 하고 분단 위원장인 김 태우가 쩡달려 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저녁 할래.》

반장인 전 인복 동무는 재꺽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두 가서 듣겠어.》

태우는 또 다른 반 동무들께로 뛰여 가며 말했지요. 단에서 조직한 《옛'이야기 대회》에서 꼭 1 등을 하겠다고 분단 위원들은 무척 바삐 서둘고 있었지요.

반 동무들은 부모들의 일'손을 돕고 저녁 무렵에 반실에 나왔습니다.

먼저 회상기 한 제목을 학습한 다음 그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처럼 배우며 생활하기에 힘써 그 누구나 최우등생이지요.

《아직 시작 안 했지?》 숙제 문제를 거의 풀 때 태우가 빙긋 웃으며 들어섰어요. 곧 《옛'이야기 모임》이 시작되였습니다.

영천이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빌진 재판》이라는 옛'이야기를 했어요

지주 놈의 집 보리 마당질을 하던 한 농민이 잘못 해서 병아리 한 마리를 죽였는데 지주놈은 그 값으로 아홉량을 받아내려다가 도리어 설흔량을 물게 되였다는 이야긴데 아주 통쾌하고 재미 있었습니다.

《저녁들을 먹고 오렴아》 하고 인호네 어머니가 일렀지만 반 동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지요.

반 동무들은 영천이를 단에서 조직하는 《옛'이야기 대회》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옛'이야기 모임이 끝난 다음 간단하게 하루의 반 생활 총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우리 영천이 있니?》

하고 밖에서 누군가 찾았습니다. 영천이네 어머니였지요. 《어머니세요. 영천이랑 우리 반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끝나요.》 하고 인복이가 성큼 일어나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니 그럼 이거 안 됐다》 하고 어머니는 돌아 섰지요. 우습기도 하고 갸륵하게도 생각하신 어머니는 무슨 의논을 하는가 알고 싶어 대문을 나서다 말고 돌아 섰습니다. 반 동무들은 어머니가 엿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인호 동무는 그 성미를 고쳐야 해》 누군가 인호를 찍어서 말했지요.

오늘 축구 시합 때 영천이와 인호가 좀 다투었던 거예요.

《영천이도 앞으론 참아야 해》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놈 누구와 다툰게구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더 바싹 귀를 기울이시였어요.

반 동무들은 서로서로 타이르고 깨우쳐 주군 하는 것이였어요. 이 반 동무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뜻이 되여 계획한 일을 척척 해 나가고 례절 밝은 소년단원으로 알려지고 있는지 아세요?

반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요. 매일 계획에 따라 《회상기 모임》, 《옛'이야기 모임》, 《작문 짓기 모임》, 《동화 구연》 등 동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재미 있는 모임을 가지거든요.

지난 번에 단에서 조직한 《웅변 대회》에도 전 인복이가 분단에서 뽑혀 나갔지요. 하루의 반 생활 총화를 할 때에는 비록 적은 일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서로 깨우쳐 주고 타일러서 그 날로 꼭 고치게 한답니다.

《오늘 와 보니 반 생활이 더 재미 있어졌구나.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 위원회 편지 학습을 잘 했다는게 훤히 알려져. 그리고 조그만한 잘못이라도 그 날로 꼭 고치고 넘어 가는게 아주 훌륭해 다른 반에서도 다 본 받게 해야겠어.》

마지막으로 분단 위원장 태우가 말했습니다.

(참 기특한 애들이군!)

어머니는 아이들이 나올세라 바쁜 걸음으로 집에 돌아 와 시치미를 뚝 따고 영천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지만

반실에서 돌아 오는 영천이의 마음은 즐겁고 가벼웠습니다.

《무슨 의논을 그리 오래 했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영천이는 몰랐습니다.

《뭘 그러세요. 어머닌 당 회의에서 의논된걸 내께 알려 주나요 뭐.》

영천이는 오늘 옛'이야기 모임 때 분단 위원장 동무와 반 동무들이 자기를 칭찬하던 걸 자랑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웃으며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난 앞으로 꼭 어머니처럼 훌륭한 로동당원이 될래요.》 하면서 밤 가는 줄 모르고 분단에서 맡은 일을해내군 하는 영천이의 마음을 어머니는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천 동무의 이 마음은 이 분단 동무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소년단원의 제일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영천이는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리 동무를 도와 끝내 최우등생이 되게 했답니다.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한창 학습하고 있던 지난해 여름 어느 비 바람치는 날이였습니다. 이날 밤도 그는 리 동무를 찾아 가 도와주고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돌아 왔답니다.

☆ 그의 일기

이날 밤 영천 동무는 어머니에게 자랑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또박또박 일기에 써 나갔습니다.

《…5월 5일 토요일

오늘 반 동무들은 나의 잘못을 차근차근 깨우쳐 주고 칭찬도 했지. 태우의 말이 옳아. 우린 정말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받고 1 년 동안 몰라 보게 달라졌어. 무엇보다 기쁜 건 오늘 리 동무가 분단의 《영예의 붉은 수첩》 에 등록된 거야. 사흘이면 하루는 결석하던 그가 오늘 산수 숙제를 척척 풀 때 분단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 앤 뭐 분단 위원들에게 내가 자기를 잘 도와 줬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지. 나는 당 중앙 위원회 편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저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했을 뿐이 아닌가.

편지의 구절구절을 더욱 깊이 가슴에 아로 새기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해야겠어. 인젠 자야겠다. 래일 아침엔 조기 체조를 하기 전에 일찍 나가 학교 마당 청소를 하자. 오늘 아침엔 5 반 동무들에게 졌지만 래일은 이겨야지.》

이것을 아십니까?

바 람

대기 중에 더워진 부분과 차게 식어진 부분이 생겼을 때 식어진 쪽의 공기가 더워진 쪽으로 움직인다. 이 공기의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한다.

륙지에서의 바람의 명칭과 속도는 다음과 같다

정온—연기가 곧추 오른다. 바람의 속도는 1 초 동안에 0~1.5 m

연풍—바람이 있음을 느낀다. (초속 1.5~3.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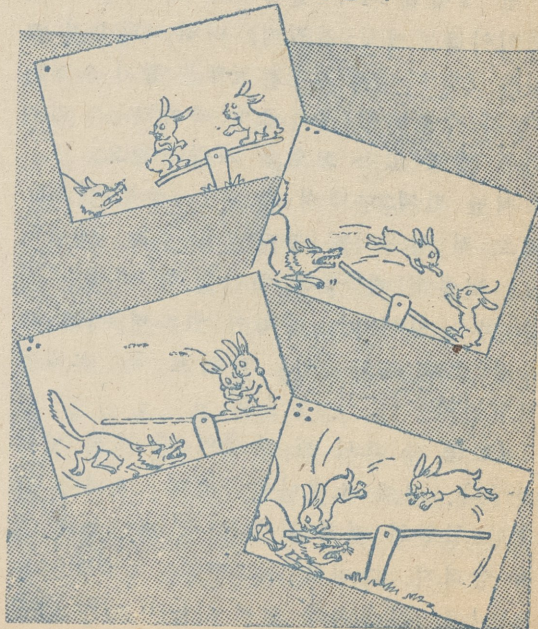
화풍—나무 잎이 움직인다. (초속 3.5~6m)

질풍—나무 가지가 움직인다. (초속 6~10m)

강풍—나무의 큰 가지가 움직인다. (초속 10~15 m)

렬풍—나무 몸통이가 움직인다. (초속 15~29 m)

구풍—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넘어진다. (초속 29 m)

봉변당한 승냥이

우화

참새와 기와집

우 봉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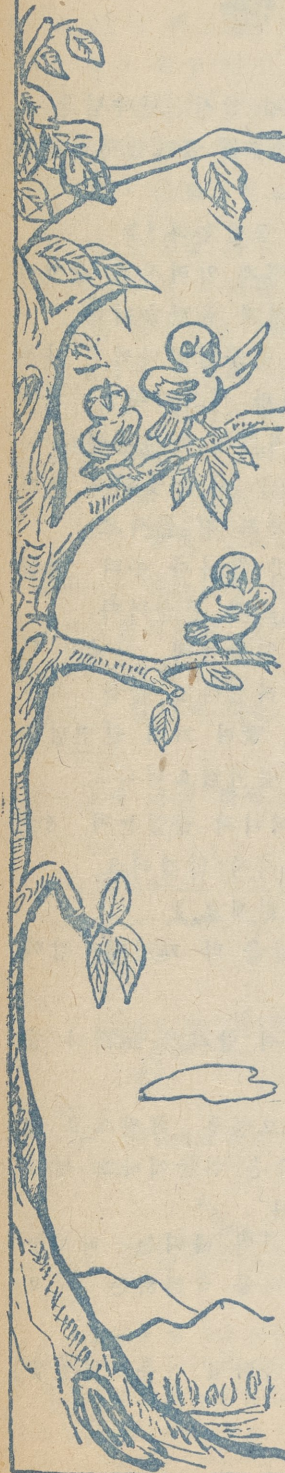
한 무리의 참새 떼가
갓 세운 기와집 마당에 모여
제가끔 입방아를 찧기 시작하였네

한 놈이 제 동무들 둘러보며
《거 장하군 저 육중한 건물을
군말 없이 떠 받들고 있는
주추돌이 말야》

그러자 한 놈이 썩 나서며
《아냐》
내겐 기둥이 훨씬 돋보이는걸
기둥이 아니라면
저 집이 어떻게 서 있겠나 말야》

그러자 또 한 놈 나불대기를
《모르는 소리들 말라구
대들'보가 없었다면 저 집은
일어 설 엄두도 못 냈을 거네.
그러니 대들'보가 제일이지 제일야》

주추'돌과 기둥과 대들'보는
하 어이 없어 입을 모아 하는 말
《아무리 자네들이 리간을 붙인대도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을 걸
값 없는 칭찬에 눈이 어두어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걸
만약 뿔뿔이 흩어진다면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외토리 신세
한갖 돌과 나무에 지나지 않을테니까…》

(작문)

원수님의 선물

지금 나는 반짝반짝 윤'기 나는 새 만년필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상 우에는 멋있는 가방이 놓이구요.

지금 내가 작문을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기 저 음악 실에서는 가야금과 바요린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 동무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들려 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만년필도 가방도 그리고 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요린과 가야금도 그 모두가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학원 써클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지난 해 12월 15일을 영원도록 잊을 수 없어요.

전국 유자녀 학원 및 초등 학원 써클 경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학원 써클원들은 영광스럽게도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경악극《해 모임》을 공연했던 것입니다.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한다!》

이 소식이 동무들에게 알려지자 갑자기 떠나갈듯한 환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얼마나 뵙고 싶던 원수님입니까! 나는 공연할 때 입는 치마랑 저고리랑을 곱게 다림질하고 깃도 맵시있게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마주 서서 웃어도 보고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도 춰 봤지요.

이윽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우리 써클원들을 태우고 갈 뻐스가 왔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서로들 먼저 타겠다고 앞을 다투었습니다. 먼저 타면 빨리 가서 원수님을 만나 뵙것만 같은 마음이였으니까요.

운전수 아저씨도 어디서 들었는지 《너희들 참 좋겠구나》하시지 않겠어요.

《아저씨 빨리 운전하세요.》

우리는 아저씨의 팔을 막 끄집어 잡아당기며 졸랐습니다.

《오냐 뻐스가 신나서 달리게 노래나 좀 부르렴.》

노래 부르며 씽씽 모란봉 극장으로 달려 가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소리 없이 내리는 함박눈이 불빛에 반짝여 우리를 축하하는 꽃보라처럼 보였습니다.

정각 8시 30 분 기다리던 막은 열렸습니다.

…해 모임이 열렸네

해 모임이 열렸네

세기의 궁전에 해 모임이 열렸네!

김 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노'래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김 일성 원수 만세!》

어느새 공연이 끝났는지 극장을 뒤흔드는 듯한 환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꽃보라도 물결쳤어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으신 원수님은 손을 저으시며 우리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님을 따라 《만세! 만세!》 높이 웨치며 밖으로 나갔어요.

원수님은 떠나시려다가 우리를 보시고 다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막 뛰여 가 원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겼습니다

공부 잘 하느냐? 춥지 않느냐? 원수님은 친아버지처럼 발까지 꼭꼭 만져 보시며 물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떠나야겠다.

이다음에 너의 학원으로 꼭 가겠다.

공연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어서들 가서 자거라…

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이 타신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밤 나는

(공부 잘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딸이 되리라)

굳게굳게 마음 다지며 오래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 가득히 기쁨과 자랑을 안고 우리는 사랑하는 학원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또 어찌합니까!

경악극《해 모임》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던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야금, 바요린, 가방, 만년필 등 선물을 보내 주시지 않았겠어요.

나라 일에 바쁘시면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원수님!

우리를 누가 고아라 하겠습니까!

원수님은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끝 없이 끝없이 행복한 그이의 귀여운 아들 딸들입니다.

강원도 원산 초등 학원
3학년 5반 박 광애

헤염 치기

2 배영

그림1.
왼 팔로 저으면서 오른 다리로 올려 찬다.

그림2.
오른 팔은 물 우로 공중 들어 앞으로 가져 가며 왼 팔은 젓기 동작의 중간 단계를 계속한다. 동시에 왼 다리는 올려 찬다.

신체 중심선

그림3.
오른 팔은 신체 중심선 비껴 앞에든 상태이며 왼 팔은 젓기 동작의 마지막 단계까지 끝내며 오른 다리는 올려 찬다.

그림4.
오른 팔은 젓기 동작을 시작하며 왼 다리는 올려 차기 동작을 한다.

그림5.
오른 팔은 젓기 동작을 계속하며 왼다리로 올려 찬다.

그림6.
오른 팔은 마지막 젓기 동작을 계속하며 왼다리로 올려 찬다.

이상과 같은 순서를 반복하면 된다.

※배영에서는 얼굴이 항상 물우에 놓이게 됨으로 어느 때든지 숨을 들여 쉬고 내 쉴수 있다. 그러나 자유영에서와 같이 규칙적으로 숨쉬기하는것이 좋다.

(력사) (이야기)

광성진 전투 이야기

리 나 영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조선 인민의 악독한 원쑤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인 1866년 여름 해적선 《샤만호》를 가지고 대동강에 기여 들었다가 전멸을 당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00 년 동안이나 조선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앞에서 언제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해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는 광성진 전투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91 년 전 1871년 여름에《샤만호》 사건을 구실로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범한 미국 침략군을 우리 인민이 격멸 소탕한 전투입니다.

광성진은 우리 나라 서울 서남방에 있는 큰 섬인 강화도 남쪽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당시 광성진에는 수도 서울과 강화도를 지키는 해안 포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적들이라도 서울로 기여 들려면 이 앞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성진은 조국을 지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샤만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 가지고 조선을 쳐 보려고 대대적인 무력 침공을 준비해 오던 미국 침략자들은 마침내 1871년 5월 말에 5 척의 군함과 수십 척의 작은 배들과 포 80 여 문에 1,230 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왔습니다.

미국 함대가 쳐 들어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미제 원쑤를 쳐 물리치는 싸움에 일떠섰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 큰 길'가마다에는 《서양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과 화의를 하자는 것이다. 침략자들과의 화의

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고 한 구호를 새긴 비석들을 세워 인민들의 투쟁 기세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이 때 미국 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서해안 일대와 특히 서울로 통하는 바다'길을 무력으로 막아서 나라의 식량과 물자 수송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책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울 같은 곳에서는 식량 사정이 좀 곤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하여 동요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여 전 민족이 한 마음 하뜻이 되여 미국 침략자들에게 물 한 방울, 쌀 한 알이라도 주지 않음으로써 놈들이 우리 조국 땅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 원쑤놈들은 먹을 물을 얻지 못해서 큰 곤난을 겪었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당시 우리 나라가 뒤떨어진 봉건 국가이므로 쉽사리 굴복하리라고 제놈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인민의 억센 반항 기세에 당황 실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자기들의 우세한 무력을 믿고 우리 측이 미처 방비 태세를 갖추기 전에 선 손을 써서 쉽게, 그리고 단숨에 서울에 기여 들어 보려고 서둘렀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6월 1일에 처음 일부 력량으로 서울로 통하는 강화 해협의 손돌목에 침입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측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혼이나서 일단 물러가 력량을 재정비하여 가지고 6월 10일에 자기들의 전체 무력을 총동원하여 다시 공격 해 왔습니다.

그 날 침략군의 주력은 함대의 엄호하에 강화도 남쪽 초지진 일대에 상륙하였습니다. 적들은 해상으로의 진공과 함께 이곳으로부터 륙지로도 진격하여 우리 나라 강화도의 주요 방위 지'점들을 차례로 점령하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상륙 첫 날부터 우리 군대의 영웅적 반격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그 날 리 렴이 지휘하는 조선 군대는 결사대를 조작하여 가지고 밤을 타서 미군 주둔지를 기습하여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으며 되는 대로 내빼는 적을 따라가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100 여 명을 죽였습니다.

미국 침략군은 초지진 전투에서 벌써 완전히 사기를 잃었으나 미군 사령부는 그들을 계속 발악적 공격에로 내몰았습니다. 다음 6월 11일에 미군은 강화도에서 주요한 지점인 광성진을 바다와 륙지 량면으로 포위하고 크게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이곳을 지키던 우리 군대는 어재연이 지휘하는 해안 포병 약 70 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배나 우세한 적들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당시 조선 포대의 대포나 포탄은 미국놈들의 대포와 포탄에 비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낮은 것이였으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우리 군인들이 발사하는 포탄은 미국 함선들에 련이어 명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척의 적 함선들을 격파하였습니다. 한편 륙지에서도 우리 나라의 영웅적 군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달려 드는 원쑤놈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복수의 총탄을 퍼부었으며 대담하게 적들을 가까이에 끌어 들여다 족치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적의 대병력을 상대로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 측에는 포탄과 총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군인들은 조금도 굴함이 없이 나중에는 밀려 드는 적들과 돌맹이와 흙을 쥐여 뿌리면서 육박전으로 최후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용감무쌍하게 싸워 조국을 피로써 지키였습니다.

이 때 미국 침략군을 몰고 왔던 로우라는 자는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미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어느 민족도 조선 인민들의 용감성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1871년의 광성진 전투는 우리 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던 미국 침략자들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 영예로운 전투였으며 이 전투를 통하여 조선 인민의 불 같은 정신을 다시 한번 높이 시위하였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조선 인민을 예속시키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그 어떠한 발악도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 앞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남조선 이야기

양키놈은 돈 빼앗고 사람 죽이는 승냥이

글 안전일 그림 리동춘

양키놈들이 무리져 날치는 김포 비행장에는 이 날도 미국 비행기가 온 종일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손 세운 소년은 벌써 몇 달째 이 군용 비행장에 고용되여 미국놈의 짐짝을 나르고 또 날랐답니다. 온 하루'동안 유, 에쓰, 에이, 라고 써 붙인 짐짝은 세운의 등에 얹혀졌으며 세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어둠이 깃들 무렵에야 굽혔던 허리를 펴고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운이가 미군에 고용된 사연인즉 이러합니다.

3 년 전에 세운이의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다가 《국군》에 끌려 나간 후 아직도 소식이 없으며 아버지가 나간 때로부터 어머니마저 심한 고통으로 병석에 눕게 되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세찬 바람이 세운이의 가정에 사정 없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세운이는 열 다섯 살의 나 어린 몸이였으나 어머니와 그의 품에 안겨 《밥 달라!》고 졸라 대는 세 동생의 목숨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 담배 몇 통을 사 가지고 서울 네거리에서 담배 장사를 해 보았으나 그것도 뜻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미군놈들은 돈도 내지 않고 그의 담배를 마음 대로 앗아 갔습니다.

적은 담배 장사 밑천마저 떨어진 세운에게는 새로운 불행이 또 겹쳤습니다.

세운이가 살고 있던 게딱지 같은 판자'집은 전쟁 준비와 군용 도로를 닦기에 눈알이 뒤집힌 미국놈들이 몽땅 허물어 버렸습니다.

병든 어머님과 동생들은 집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김포 비행장 근방 밤나무'골 외가'집에 찾아 가게 되였습니다.

그 때로부터 세운이는 가족을 위해서 미국놈의 무서운 채찍 밑에서 막로동을 하게 되였습니다.

주린 창자를 움켜 쥐고 비행장을 나선 때였습니다. 행길'가에는 더붕, 에쓰, 단스란 미국놈 비행사가 바위에 걸쳐 앉아 담배를 퍽퍽 빨고 있었습니다.

세운을 발견하자 그놈은 《오… 손 소년 이리 와》하고 지꺼렸습니다.

세운이는 의아한 얼굴로 미군을 쳐다보았습니다. 단스란 미국놈은 무엇을 생각했던지 세운이 앞에서 갑자기 교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세운이를 제법 앉으라고 자리까지 권하였습니다.

《딸라 있어… 나에게 쪼코레트 많이 많이 있소.》

세운이는 어안이 벙벙 하였습니다.

그놈은 표정과 손'짓까지 해가면서 세운이가 알아 듣도록 이야기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람잡이를 위한 비행기 훈련에 그렇게도 미쳐 날뛰던 단스놈은 이 날 길 가는 조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쥐여 박고 죽이면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심에서 행길에 나와 앉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세운이는 구두 닦기와 담배 장사를 하는 자기 동무들로부터 푼'돈을 모아 가지고 단스놈을 만났습니다.

단스놈은 여우처럼 생긴 낯짝에 상냥한 웃음을 띠우면서 《오, 손 세운, 아주 기특한 소년입니다. 우리 미군 조선 소년 매우 사랑합니다. 곧 쪼코레트 상자를 주겠습니다.》하면서 돈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단스놈으로부터 물건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세운이가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단스놈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선 소년들의 코 묻은 돈마저 송두리채 앗은 미군놈은 때로는 세운이를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곧 준다고 얼리기도 했습니다.

영식, 철호, 문섭, 길수 등 세운이에게 돈을 맡긴 아이들은 매일 같이 세운이가 쪼코레트 상자를 가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세운이는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안고 동무들을 찾아 갔습니다.

언제나 네 소년이 짝을 지어 다니던 동무들 중 셋만 있고 길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미안하기 짝이 없구나, 그놈의 양코배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밀린 로임을 달래도 주지 않고, 아 일을 어쩌면 좋겠니…》

《세운이, 이 거적을 보라, 어제 길수가 죽었다. 미국놈이 아무런 리유도 없이 길 가던 길수를 쏘아 죽였단 말이야, 너 정신 차려라.》

순간 세운이의 눈 앞은 캄캄해졌습니다.

피 묻은 헌 거적에는 총알이 가슴과 머리를 뚫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길수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운이는 사람을 죽이는 승냥이의 간악한 입에다 동무들이 피땀을 흘려 얻은 돈을 던져 준 자기가 끝 없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소년들은 쓰러진 길수의 원쑤를 갚자고 모두다 굳게 마음 먹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놈에게 가서 당장 받아 내리라…》

이렇게 다짐한 세운이는 곧 비행장 구역으로 달렸습니다. 뒤미쳐 영식, 철호도 따라 나섰습니다. 때마침 비행장 어구에서 단스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단스놈은 일요일이여서 이 날도 조선 사람을 《사냥》하려 나오던 참이였습니다.

《왜 물건을 안 줘요?》라고 세운이가 말하자 그놈은 이날 따라 매우 《친절》하게 대하면서 《손 이리 와 쪼코레트 저 언덕 나무 밑에 감춰 두었소.》하고 세운이를 데리고 언덕'길로 올라 갔습니다. 세운이가 단스놈의 뒤를 따라 언덕우 나무 그늘에 왔을 때였습니다. 단스놈은 나무숲을 가리키며 쪼코레트 상자를 얻어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세운이가 나무숲으로 들어 가 두리번 거릴 때 갑자기 《쾅, 쾅, 쾅》하고 세 방의 총 소리가 김포 비행장의 저녁 공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운이는 《악》 소리를 치면서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첫 사냥부터 운수가 좋다. 옛날 흑인 사냥하던 생각이 나는 걸…》

단스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언덕'길을 내렸습니다.

총 소리에 놀랜 영식이와 철호는 재빨리 세운이가 쓰러진 곳에 달려 갔습니다.

《미국놈은 원쑤다. 돈 빼앗고 사람 죽이는 승냥이다. 미국놈을 때려 부시라…》 이 말을 남긴 채 세운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식이와 철호의 어린 심장은 원쑤놈에 대한 증오로 하여 높뛰였고 그들의 억센 주먹은 분노에 떨렸습니다. 그들이 뿌린 돌과 《고무 총알》은 사정 없이 단스놈에게 퍼부어졌습니다.

척척 할아버지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그 동안 공부들 잘 하였느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 줄가?

일동—할아버지 우리는 여름 방학에 야영, 행군, 등산 등을 많이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일기를 알아 맞추는 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 참 재미있는 문제로구나.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아주 흥미 있는 일이지.

덕호—할아버지,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질 징조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척척 할아버지—날씨가 좋을 징조를 아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행군할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저녁 때 풀 잎이나 벼 잎에 저녁 이슬이 많으면 다음 날도 개이는 것이다. 그것은 저녁이 되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로 되여 풀 잎이나 벼 잎에 내려 앉기에 그만큼 공기 중의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참새가 낮에 목욕을 하고 있어도 다음 날 날씨는 계속 개일 징조란다.

영수—할아버지, 저는 비 오는 날에도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척척 할아버지—비 오는 날에도 거미가 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은 잠시 후에 내리던 비가 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동물들이란 사람과는 달리 공기 속에 있는 습기에 아주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미란놈이 이제 비가 더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 벌써 알고 있는 셈이다.

정희—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비가 올 징조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척척 할아버지—아침에 무지개가 서면 비가 온다고 말한다. 어째서 무지개가 서는지 아느냐?

정희—무지개란 공기 중에 많은 물방울들이 해'빛을 받아 쁘리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척척 할아버지—맞았다.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비가 올징조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징조인 것이다. 너희들은 제비가 뭘 먹고 사는지 아느냐?

덕호— 동물 학과 시간에 배워서 압니다. 제비는 공중에 날아 다니는 작은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잘 아는구만, 제비들은 곤충을 잡아 먹기 위해 높게도 날고 낮게도 나는 것이다. 곤충이 낮게 나는 것은 곤충들의 날개가 습기에 젖어 높게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곤충을 잡아 먹는 제비는 곤충을 따라 궂은 날에는 낮게 날게 되는 것이다.

정희—할아버지 어떤 날이면 학교의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낮게 날아 도는 곤충을 잡아 먹기 위해 물 우로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척 할아버지—그런 날에는 비가 올 징조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알아 맞추는 법이 있다. 개미가 줄 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 청개구리가 우는것, 참새가 저녁에 몇 마리씩 떼 지여 열심히 모이를 찾아 날아 다니는것, 하루살이가 뭉켜 날아 다니는것, 꿀벌들이 떼를 지어 붕붕거리며 날아 다니는 것 등 곤충들의 이런 행동은 자기들의 생활이 일기 조건으로 불리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행동인 것이란다.

영수—바람이 일 징조는 어떠합니까?

척척 할아버지—날씨는 좋으나 솔개미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을 때는 바람이 일 것이다.

일동—할아버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자연 관찰을 통해 날씨를 알아 내는 일은 사람의 관찰력을 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성을 배워야 한다

일동—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척척 할아버지—다시 만날때까지 잘들 있거라.

행군을 떠나는 동무들에게

☆배낭 준비

배낭은 넓은 멜방을 달아 어깨에 메여야 합니다. 좁은 멜방을 메면 어깨가 아픕니다.

멜방이 너무 짧아도 안됩니다. 배낭이 허리 우에 편히 놓이게 해야하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자면

행군할 때 신는 신발은 가벼운 운동화에 바닥을 한 벌 더 댄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에 꼭 맞지 않으면 빨리 발이 부르틀수 있으므로 잘 맞는 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말은 기운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에는 발을 잘 씻어야 합니다. 발이 더러우면 신발이나 양말에 의하여 빨리 부르틀 수 있으니까요.

발톱도 짧게 깍아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안하고 떠나면 발이 빨리 부르틉니다. 발이 부르트면 피부에 물'집이 생기여 터지면서 아프지요.

그러면 행군을 더 계속할 수 없습니다.

☆ 방위를 어떻게 판정할가요.

깊은 밀림 속이나 산 중을 행군하자면 지남침이 없어도 남 북을 알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낼가요.

1.봄과 가을이라면 기러기와 학이 날아 가는 쪽을 보시요. 봄에는 북쪽으로 날며 가을에는 남쪽으로 날아 가지요.

2.큰 바위나 큰 나무 밑동을 찾아보시오.북쪽 켠에 검버섯이 많이 돋아 있습니다.

3.숲에 있는 개미 둑들은 남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나무 가지와 잎사귀들은 북쪽보다 남쪽을 향한 부분이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5.언덕 우의 눈을 보세요. 남쪽을 향한 경사면이 빨리 녹아요.

6.톱으로 짜른 나무 그루의 년륜을 보십시요. 북쪽 켠에 있는 년륜들은 남쪽 켠에 있는 년륜들보다 가늘고 배좁습니다.

묘향산

법 왕 대

소년단원 동무들!

이번 호에는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과 더부러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묘향산을 탐승하기로 합시다.

묘향산 (높이 1,099 m)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세 개 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승지입니다. 향나무가 하도 많아 그 냄새가 향기로워 산 이름을 묘향산이라 불러 온답니다.

묘향산은 금강산처럼 화강암이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받아 기기묘묘한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을 이루었고 골짜기마다에는 가지각색 식물들이 자라고 꽃 피여 그 풍치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유선 폭포, 대아 폭포, 금강 폭포, 산주 폭포, 룡연 폭포, 천신동 폭포 등 크고 작은 폭포들이 많아 그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경치 뿐만 아니라 묘향산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 유물들도 많습니다.

-☆인호대☆-

룡연 폭포와 산주 폭포

룡연 폭포와 산주 폭포는 묘향산의 많은 폭포들 중에서도 이름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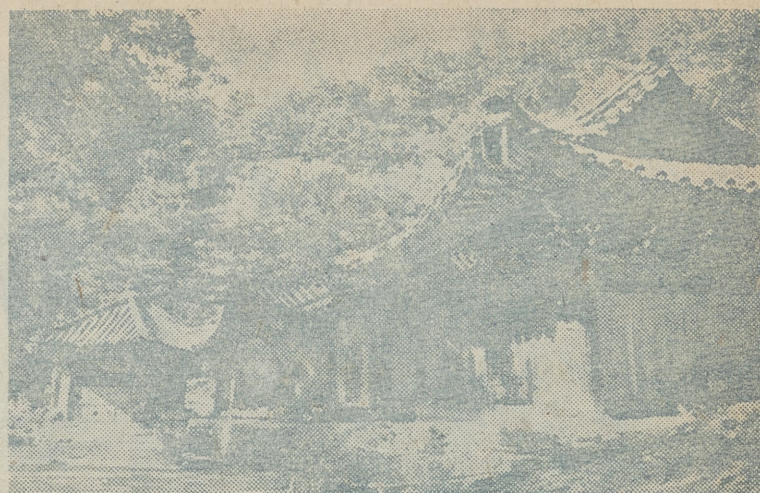
보세요. 200 m 되는 저 높은 벼랑 오른 쪽에서 눈'가루가 흩날리는듯 쏟아지는 폭포가 산주 폭포고 그 왼쪽으로 푸른 룡이 금시 하늘을 나르는듯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룡연 폭포예요. 맑고 차디 찬 물이 구슬 같이 쏟아져 은빛 안개를 일쿠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해요. 마치 금강산의 구룡 폭포를 생각케하지요

상 원 암

수백년씩 자란 나무들이 우거진 가운데 자리 잡은 상원암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 유산의 하나입니다.

청기와와 황기와 뛰여난 건축술과 그림들은 옛날 우리 선조들의 재간과 솜씨를 자랑해 줍니다.

상원암에서 법왕대 (1,390 m)에 오르면 청천강과 산골짜기들을 달리는 기차가 굽어 보이고 희천, 향산, 운산, 구장, 개천, 녕변 등지가 한 눈에 바라 보입니다

상 원 암

법 왕 대

법왕대에 오르면 저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일천여 개의 기이하고 묘한 바위들과 돌들로 된 세상 만물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난 사자가 뛰여 가는듯한 모습, 마치를 들어젠 로동자를 생각케 하는 모습, 원쑤를 무찌르는 인민군 용사들을 조각해 놓은듯한 모습이며 각가지 짐승들의 모습을 한 아주 묘한 바위들이 수없이 늘어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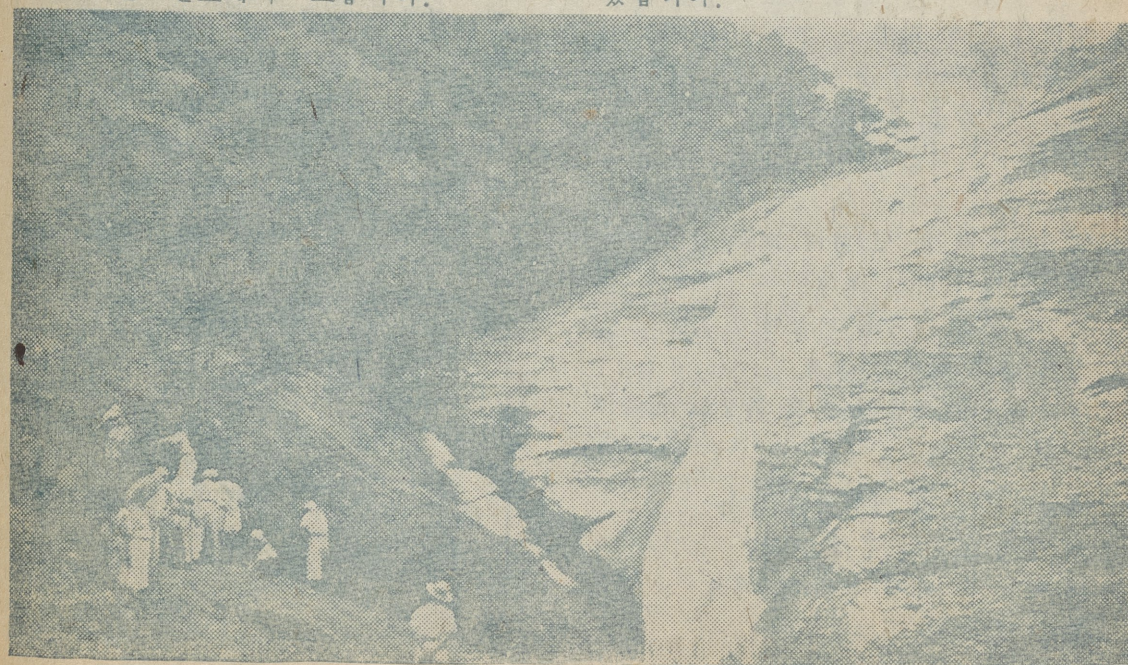
룡연 폭포를 바라보면서 서쪽 바위 우를 오르면 인호대에 오릅니다.

인 호 대

인호대에서 산주 폭포와 룡연 폭포를 내려다 보면 그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폭과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탐밀봉, 탁기봉, 법왕대, 광곽봉 등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 묘향산의 웅장함을 더욱 자랑해 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묘향산에는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어 지금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 휴식 터로 되고 있으며 우리 소년들이 여름 한때를 즐기는 야영지로 되고 있습니다.

룡연 폭포

(동시)

나의 책상

림 철 삼

짜르릉…짜르릉…종 소리 따라
하루에도 수 없이 오르 내리던 층층대
나는 단숨에 뛰여 올랐구나
영예의 졸업증 가슴에 품고…

정다운 교실 문 척 들어 서니
환히 웃으시는 원수님 초상 아래
맨 앞줄 첫 자리!
사랑하는 나의 책상아!

날마다 닦고 닦아
알른알른 빛나누나
잉크 한 방울 떨어졌으랴—
줄 하나 그어졌으랴!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또 한번
의젓하게 앉아도 보고
손 때 묻은 자국을 더듬어
쓸어 보고 닦아도 보고
고마우신 선생님의 말씀 회상도 하며

그렇지만 종시 지워지지 않는
한 귀에 오목한 흠집 하나,
그 때는 내 아직 철부지였어도
참말 너 보기 부끄럽구나

아침마다 너는 나를 반겼고
나는 네 곁을 한 번도 떠난적 없지.
때로는 산수 문제 못 풀어.
네 우에 붉어진 얼굴 묻은 적도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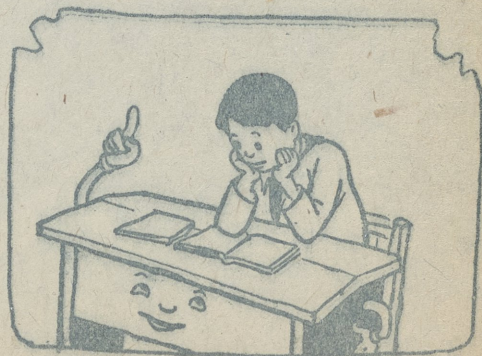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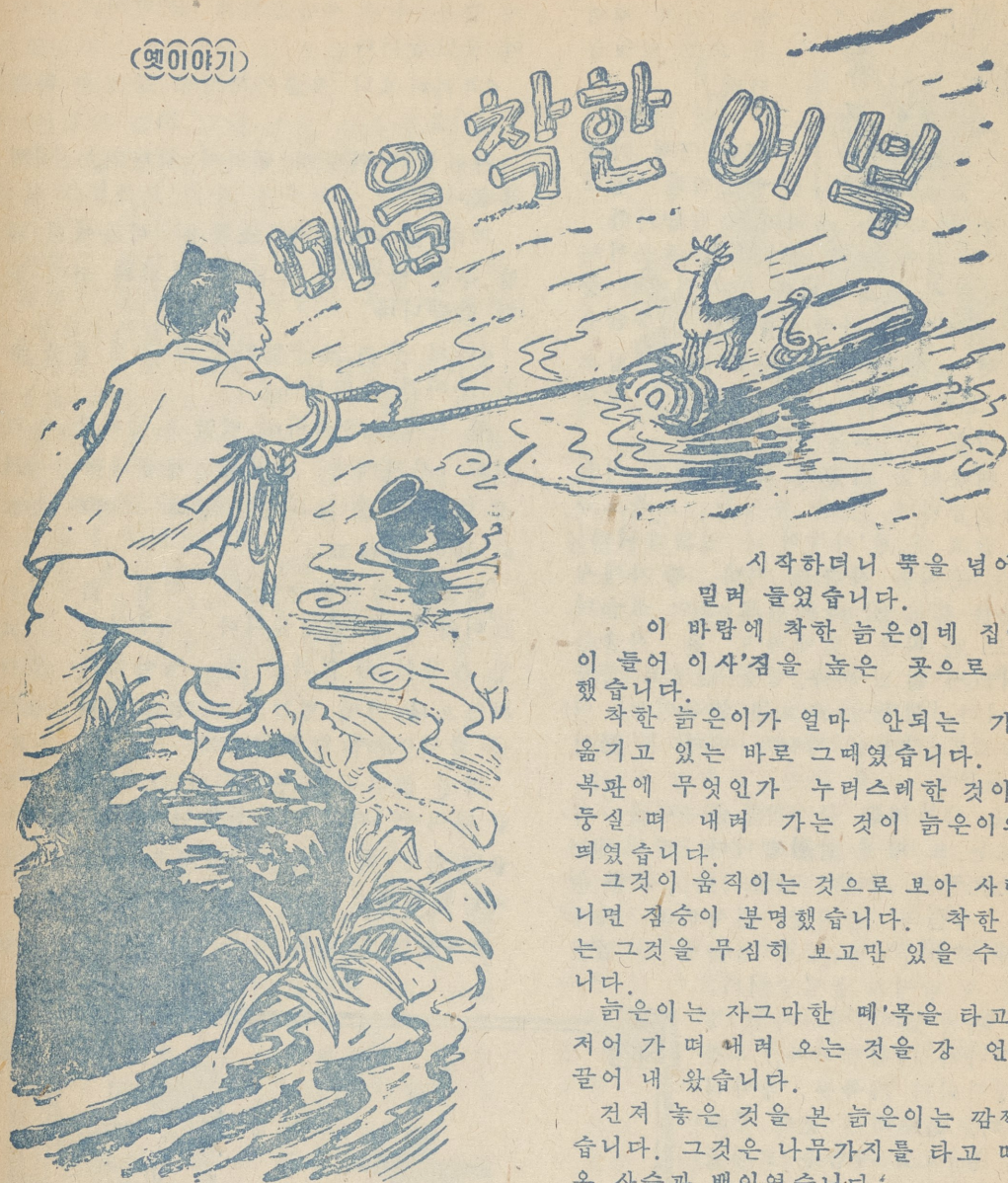
그러면 너는 다시 한 번 풀어 보라
다정하게 속삭여 주는듯 했고
나는 끝내 손을 번쩍 들었지
학기마다 최우등생 되였지!

아, 귀여운 동생을 두고 떠날 때처럼
너와 헤여지기 정말 아쉬워도
나는 무척 기쁘구나
네 동생들 나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 또한 그들을 도와 변함 없겠지
사랑하는 나의 책상, 배움의 보금자리
야!

(옛이야기)

마음 착한 어부

오랜 옛날 어느 강'가에 고기 잡이 하는 마음 착한 로인이 한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인은 마음이 착한 로인이라 잡은 고기를 팔아 돈을 벌 욕심보다는 자기 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착한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였습니다. 한 주일이나 퍼 부은 장마비는 큰 물을 냈습니다. 강물이 벌개지면서 물'살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뚝을 넘어 벌로 밀려 들었습니다.

이 바람에 착한 늙은이네 집에도 물이 들어 이사'짐을 높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착한 늙은이가 얼마 안되는 가구들을 옮기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한 복판에 무엇인가 누러스레한 것이 둥실 둥실 떠 내려 가는 것이 늙은이의 눈에 띄였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 분명했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그것을 무심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이는 자그마한 떼'목을 타고 빨리 저어 가 떠 내려 오는 것을 강 언덕으로 끌어 내 왔습니다.

건져 놓은 것을 본 늙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나무가지를 타고 떠 내려 온 사슴과 뱀이였습니다.

그러나 착한 늙은이는 사람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너희들이 하마트면 바다로 떠 내려 갈 번 했구나. 이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잘 살아라.》

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사슴과 뱀은 말은 못하나마 머리를 연신 끄덕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각각 어데론지 헤여져 갔습니다.

이윽고 겨울이 닥쳐 왔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찬 기운이 도는 방에

들어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뚜벅 뚜벅 하는 발소리와 함께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이 둥그래서 늙은이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뜻하지 않은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반가운 듯 고개를 수걱거리고 나서 입으로 옷을 물어 당기는 품이 늙은이를 밖으로 나가자는 눈치였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사슴이 하자는대로 이끌리여 나갔습니다. 숫눈 우에는 오목오목 사슴이 밟고 온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사슴을 따라 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 골짜기로 들어 섰습니다. 어느 한 바우 앞에까지 온 사슴은 더 가려하지 않고 바우 밑을 앞발로 쿵쿵 굴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늙은이는 이상한 눈으로 사슴을 멍하니 바라 볼 뿐이였습니다.

사슴은 안타까운 듯 착한 늙은이를 쳐다 보고는 또 땅을 굴렀습니다. 땅에서는 쿵쿵하고 궁근 소리가 났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사슴의 눈치를 짐작하고 바우 밑을 파 헤쳤습니다. 굳게 얼었을 줄 알았던 땅은 뜻 밖에도 물렀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자그마한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금덩어리가 가득든 항아리였습니다. 늙은이가 눈이 둥그래지는 걸 보고 사슴은 고개를 수걱거리며 좋아 하였습니다.

《사슴아! 무슨 일이냐?》

의아스러우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하는 늙은이를 보자 사슴은 코를 벌름거리며 산 속으로 살아지고 말았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금항아리를 지고 산골짜기를 나와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 온 착한 늙은이는 혼자 가질 생각 대신에 처지가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착하다보니 사슴이까지도 동정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감탄하는 것이였습니다.

착한 늙은이의 이 소문은 마을에서 제일 욕심 많고 돈 많은 김 부자의 귀에 들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문일가? 그 거지 같은 놈이 부자가 되다니!》

김 부자는 금덩이를 빼앗을 궁리를 해 가지고 관가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네 금'덩이를 늙은이가 몰래 도적해 갔으니 찾아 달라고요.

억울한 일이였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드디여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렇던 가난한 사람이 금'덩이를 한 항아리나 얻게 되였으니 어떤 변명을 하여도 관리 놈들은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숱한 매를 맞았고 또 금'덩이를 죄다 빼앗겼습니다. 김 부자는 금'덩이를 착한 늙은이에게서 나눠 받은 사람들까지도 알아 내여 빼앗았습니다.

《사슴이 덕으로 얻은 금'덩이를 무슨 땃에 빼았느냐?》

하고 늙은이는 김 부자나 관리놈들에게 대들었지만 한 패가 된 놈들의 세력을 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나갈 수만 있다면…》

착한 늙은이는 이미 사형을 받은 신세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며 살아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서 원쑤놈들을 복수해 보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형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였습니다. 수심에 잠긴 눈으로 벽 높이 달린 네모난 들창을 통해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 보고 있던 착한 늙은에는 굵다란 뱀 한 마리가 높은 들창을 기여 넘어 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을 하며 뱀의 거동을 살피노라니까 뱀은 다짜고짜로 달려 들어 착한 늙은이의 팔뚝을 물어 놓고는 다시 들창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뱀에게까지 물려 팔이 뚱뚱 부어 오르게 되자

《죽을 놈의 신수란 가엾구나!》

착한 늙은이는 한숨을 내 쉬였습니다.

팔은 저리고 쑤시는 듯 아파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팔을 물고 도망쳤던 뱀이 다시 들어 와 무슨 풀'잎을 늙은이 앞에 떨어뜨리고 나갔습니다.

늙은이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풀'잎을 상처에 부쳣더니 뚱뚱 부어 올랐던 상처가 깨끗이 가시여졌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한편 기쁘면서도 래일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울분만 치밀어 오를 뿐이였습니다. 도망을 칠 궁리도 해 보았지만 옥문직이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였습니다. 옥사 밖에서 두 선대는 옥문직이들의 말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발돋음을 해가면서 창'가에 귀를 바싹 대고 들었습니다.

《뭐? 원님이 뱀에게 물렸대?》

《낮에 방에서 잠시 쉬는 참에 큰 뱀이 달려 들어 물었다질 않어?》

《그래 의원을 보였다나?》

《독이 퍼져 의원도 인젠 할 도리가 없단대.》

두 옥문직이 이런 말을 주고 받는데 또 다른 한 옥문직이

《원님은 누구든지 고쳐 주는 사람에겐 큰 상을 준다구 광고를 세상에 하라는 분부를 내셨대!》

하고 말참견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

해 보았습니다. 그 어떤 밝은 길이 눈 앞에 훤히 트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 뱀이 한 짓이다. 은혜를 갚고자 나를 도우려 한 모양이다.》

착한 늙은이는 문 밖을 순도는 옥문지기를 불러 원님의 상처를 자기가 고쳐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곧이 듣지 않던 옥문지기도 늙은이의 간절한 청을 결국 받아 주었습니다. 원님은 뚱뚱 부어 오른 다리를 어루만지며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를 알아 본 원님은

《그저 내 상처만 고쳐 주게. 그러면 자네 소원을 이루워 줄 터이니…》

착한 늙은이는 옷소매 속에 간직했던 뱀이 주고 간 풀을 슬쩍 꺼내여 원님의 상처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시에 아픔이 멎으며 벌겋게 부었던 다리가 훌쩍 제색대로 나아졌습니다.

《웬일인고? 그대에게 이런 비상한 재주가 있단 말인가?》

원님은 감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대의 소원을 말하라》

《소원은 상금도 벼슬도 다 싫습니다. 저와 함께 무고하게 갇힌 사람들을 당장 놓아 주고 욕심 많고 거짓으로 찬 김 부자 놈을 처단해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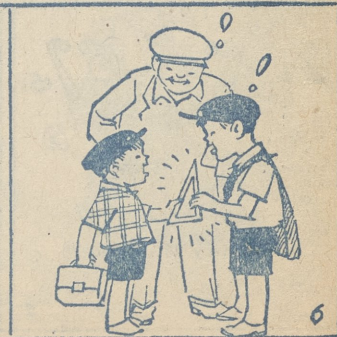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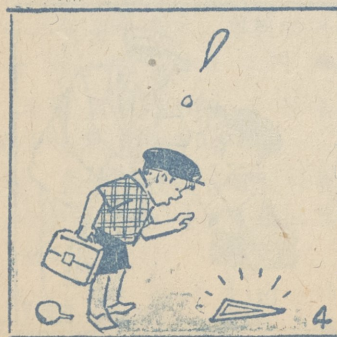
하고 말하면서 늙은이는 홍수에서 사슴과 뱀을 구원 해 준 이야기로부터 사슴이가 금항아리를 알려 준 이야기, 욕심쟁이 김부자 놈이 거짓 고발한 이야기 그리고 뱀이 한 일도 자기를 도우려는 행동이였다는 것을 조금도 숨김 없이 다 이야기 했습니다.

착한 늙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원님은 한참 묵묵히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더니 드디여 부하에게

《이 늙은이의 말대로 해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님의 마음에는 뢰물을 받아 먹은 것이 집였으나 뱀에게 물렸던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올가바 겁이 나서 부득히 착한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착한 늙은이는 갇혔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옥사를 나오게 되였고 대신 욕심쟁이 김 부자가 붙들려 들어 갔습니다. 착한 늙은이는 몸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금'덩어리까지도 다 도루 찾았습니다.

(작문)

새 교복을 타 입은 날

오늘은 새 교복을 탄 날입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꼭 같이 분홍 웃옷에 파란 치마를 탔습니다.

그 누구의 몸에나 꼭 맞는 아름다운 새 교복이였어요.

공부가 끝나자 나는 새 교복을 꼭 껴안고 어느새 집으로 달려 왔는지 몰라요.

집에 와 보니 기술 학교에 다니는 언니와 인민반에 다니는 동생은 벌써 새 교복을 갈아 입고 좋아라고 야단이였습니다.

나는 얼른 새 교복을 갈아 입고 거울 앞에 가 섰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거울에 마주 세웠다 돌려 세웠다 하시면서 옷맵씨를 보시더니만 《네 해도 꼭 맞는구나. 애들이 막 달라진 것 같구나!》하고 행복에 겨워 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방긋 웃어 봤지요.

그 바람에 언니도

《얜!》하고 내 등을 가볍게 치며 생긋 웃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태여 났다!》

아마 어머니는 지주네 집 소작살이를 하며 글 한자 배우지 못하고 눈물로 누더 치마를 적시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셨나 봐요.

정말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이 권세를 부리던 왜정 때 같으면야 이런 행복을 꿈엔들 생각이나 해 봤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반부의 우리 동무들은 헌 누더기를 걸치고 쓰레기 통을 뒤지다가 미군놈들의 총탄에 맞아 쓸어지고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 두 주먹이 막 떨립니다.

《너 이 교복을 누가 주셨는지 아니?》 동생에게 물어 보았더니

《알지 않구,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거지 뭐》

하면서 썽 밖으로 뛰여 나가더니 마을 어른들께 자랑하며 돌아 가는 것이였어요.

자강도 강계시 고당
중학교 3 학년
김 옥 순

진 달 래

눈'바람도 이겨 내고
비'바람도 이겨낸
곤장덕의 진달래
정말 고운 진달래

오늘의 행복한 조국을 밝혀
보천보에 불'길 올린
원수님의 뜻을 담아
자랑스레 피였지

보고 보고 또 봐도
정말 고운 진달래
우리들 가슴에도
붉게붉게 피였지

자강도 전천군
전천 중학교 단
리 용 원

(작문)

즐거운 야영

영남아!

이곳 신양 야영소에 온 분단 동무들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네가 앓지 않고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포근한 잠을 깨우는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보람찬 일과는 시작된단다.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이 많지만 크루쇼크 활동이 제일 재미 있구나.

나는 문학 크루쇼크에 들었어.

영남아, 여기에도 《금강산》이 있다는 걸 네가 알면 놀랄거야. 어떻게나 아름다운지 이곳 인민들이 《금강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이 산에 올라가 작문, 동요, 동시도 짓고 《보물 찾기》 등 여러가지 재미 있는 놀음을 한단다.

높고 낮은 산들이 옹기 종기 솟아 있는 《금강산》에는 잔솔나무들이 짝 짜서 매욱 아름답구나. 우리는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 후에 돌아 가면 보여 줄게.

분단 위원장 동무는 동식물 크루쇼크에 들었어. 그앤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면서 날마다 이름 모를 식물들을 채집해서 책 사이에 끼워 두군 한단다.

야영소에 와서 춤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아니? 지금 야영소에서는 우리 분단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늘 칭찬이야. 우리 분단 동무들은 지금 야영소의 모든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있단다.

재미 있는 이야길 하나 할가? 며칠 전 밤엔 내가 야영소 보초를 척 서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바삭바삭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목총을 단단히 들어 쥐고 눈여겨 보니 흰 그림자가 얼른얼른하더구나.

(옳지 단단히 혼을 내워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섯 누구야!》 건넌 산이 쩌렁 울리게 소리쳤지. 그랬는데 참 웃으워 죽겠더구나.

《좋소, 아주 경각성이 높군!》하며 가까이 오시는 걸 보니 야영소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아니겠니

나는 얼른

《근무 중 아무 사고 없습니다.》

하고 보고 했어.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야영기'발을 내리운 다음 우리가 포근히 잠드는 침대는 얼마나 멋 있는 줄 아니

푹신한 마다라스에 이불, 하불, 담요, 꽃요까지 덮고 깔고 잔단다.

영남아, 즐거운 야영 생활의 가지가지 재미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 쓸 수 없구나. 아제 한아름 선물을 안고 가서며 재미 있게 죄다 이야기 하여 줄게 오늘은 이만하자. 우리가 학교에 돌아 갈땐 운동장에서 뛰여 노는 너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평남도 순안군 남산 중학교 초급반 1 학년
최 창선

(동요)

우리 마을 힘 장수

우리 마을 힘 장수 엑쓰까와톨
몇 삽이나 볼어야 저 큰 입이 불룩할가
5백 명이 한 번씩 5백 삽도 적어.
천 명이 한 번씩 천 삽도 적어요.

팔뚝 같은 이'발로 한 번 흙을 팍 물고
빙그르르 돌아서 차 방통에 쿵 쏟으면
자동차도 우릉 우릉 소리쳐요.

우릉부릉 달리며 자동차는 웨쳐요,
—쨩쨩 암만이구 퍼 담아라
고개'길 천 리라도 막 달린다야
500만 톤 풍년 고지 씽씽 달려 올라 갈테다

황해남도 신천군 새길 중학교 단
림 정신

어떻게 하면 작문을 더 잘 지을 수 있을가요.

강 효 순

글 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앞으로 작가나 기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과학자, 기술자, 체육가, 의사, 교원…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과 자기가 직접 겪은 아름다운 체험들을 글로 써 놓으면 그만큼 지식도 풍부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상과 감정 그리고 정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는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이 있어야 하며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남보다 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를 위하여 항상 투쟁해야 합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은 그다지 긴 글이 아니건만 어째서 우리 독자들의 심장을 그처럼 격동시키며 그처럼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강도 왜놈들을 반대하여 피 흘려 싸운 자신들의 생활을 그 대로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가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 한 학급 한 책상에 병남이라는 학생과 민휘라는 학생이 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은 작문 시간에 《동생》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짓게 하였습니다.

병남이는 동생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침에 동생이 일어나면 옷을 입혀 주고 세수도 하게 합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 와서는 노래와 춤도 배워 주고 그림 책도 설명해 줍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도 대주고 부모님의 말도 잘 듣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민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문 시간에 어떻게 되였습니까?

병남이는

병남이는 동생에 대해서 써야 할 이야기가 많고 많았습니다. 병남이는 자기가 동생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동생이 집과 마을에서 귀엽게 노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재미 있는 이야기들만을 추려서 작문을 지였습니다. 병남이의 작문을 읽으면 정말 그의 동생을 한번 만나 보고 싶도록 졌습니다.

그러나 민휘는 동생에 대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민휘는 자기도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잘 모르게 이것 저것을 마구 몇 줄 써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병남이의 작문을 읽고 아주 잘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작문은 단벽보에까지 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민휘의 작문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요! 병남이는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을가요? 그는 남보다 글 재간이 더 많아서 그랬을가요?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름답게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과도 통합니다. 그것은 분단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도 통하며 나아가서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루 동안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일을 해 놓고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적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적는다고 하면 그 글은 결코 좋은 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해 《소년단》 6 호에 발표된 오로 2 중학교 2 학년 최 순남 동무가 쓴 작문 《가야금》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가야금 소리는 우리 나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며 동무들은 가야금을 직접 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깊은 생각이 없이 가야금 소리를 듣거나 뜯는다면 거기서 무슨 새로운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나라 일본에서 쓰라린 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주야로 그리워하던 최 순남 동무는 가야금 소리를 들을 때에 평범하게 그 소리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야금 소리에서 아름다운 조국을 생각했으며 조국의 따뜻하고도 너그러운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민휘는

동무들 주변에서는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런 이야기로 글을 쓸 수 있으니

너 한 번 써 보아라》 하고 고함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서 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세째로 적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늘 구멍이 비록 좁지만은 그 구멍으로 큰 것을 내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글도 사소하며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독자들에게 큰 것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동무들도 어떤 글을 읽을 때에 그리 큰 사건을 들어 이야기하지 않는 데도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글이 있고 어떤 글은 큰 문제를 들고 나왔는 데도 우리의 가슴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에서 이야기한 《가야금》은 큰 사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또 큰 소리로 웨치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나면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조국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과 조국의 품에 안긴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가요? 최 순남 동무는 평범한 가야금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국에 대한 끓어 넘치는 사랑을 자기의 글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며 쓰는 련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넓어지며 감정이 풍부해지며 생활이 아름다워집니다. 책을 언제나 손에서 놓지 맙시다. 짧은 시간에도 책을 읽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리고 쓰는 련습이 필요합니다. 그 날의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골라서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작문 형식으로도 씁시다. 그리고 편지와 수필 형식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매일 써 나가면 새로운 것을 보는 능력도 늘게되며 글 쓰는 솜씨도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동무는 지식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사상과 감정이 풍부해져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더욱 충실히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

거북선

동의 보감

고려자기

거북선—거북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되는 철갑선이다.

1591년에 리 순신 장군은 왜적들의 침략을 막아 내기 위하여 이전 거북선을 새로 만들어 싸움에 리용하였다.

그 후 1818년에 영국에서 처음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그보다 200 년 이상이나 앞선 것이다.

동의 보감—우리 나라의 뛰여난 의학자 허 준 선생이 1611년에 만든 동의학 책이다. 이 책은 동의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에서 1613년과 184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출판되였는데 그 후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서까지도 출판되여 동의학의 기본으로 널리 사용되였다.

고려 자기—고려시대 공예품으로서 가장 이름이 높다. 고려 자기에서 가장 첫자리로 곱을 수 있는 것은 고려 청자이다.

당시 《고려청자》는 《천하 제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고려 청자는 빛갈과 그의 형태와 무늬에서 아름답기로 세계에 이름난 것이다.

도끼장군

글 리원우 **제 2 회** 그림. 남현주

13) 일찌기 아버지를 여읜 일'군 총각은 어머니와 둘이 살았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쪽 서 쪽에 갈려 종살이를 하였으므로 한집에 모여 오손도손 살아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군 총각은 동네 어머니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했고 또 마을 아이들을 제 동생처럼품어 주었답니다.

14) 한번은 흙종달새를 빚어 애들에게 줬더니 좋아했답니다. 그 때 독수리 하나가 병아리를 덮치려는 것을 일'군 총각이 소리쳐 쫓아 보냈답니다. 이것을 본 한애가 흙 독수리를 빚어 들고 그 뺨을 철썩 갈기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애들은 모두 좋아하며 흙 종달새로 그놈을 툭툭 받아주자 주둥이도 날개도 뚝 떨어졌답니다.

15) 일'군 총각은 주인 령감을 독수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주인 령감은 일'군 총각을 병아리로 봤던 모양인지 그 구부러진 부리로 툭툭 쪼아주고 발통으로 멱살을 잡군하며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16) 일'군 총각은 스물 세 해 동안 지주네 집에서 더러운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는 몹시 착하고 그리고 씨름도 잘하고 힘이 장수여서 집채만한 돌을 한 손으로 들어 윙팽개친답니다.

17) 그는 힘이 세지만 동무끼리 멱살을 쥔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 말다툼이 벌어져도 동무끼리 말로 합니다.

《거 뭐 때릴거야 있소. 때리면 맞은 동무가 아파 할텐데요.》

그는 동무끼리는 주먹을 내 흔들지 않고 그 주먹을 소매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18)한번은 소매 속에 넣어 뒀던 주먹을 꺼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미 종달새를 놓아 줬다고 주인 아들 놈이 몽둥이로 후려친 날입니다. 성이 난 총각은 몽둥이를 빼앗아 던진 다음 그놈의 멱살을 틀어 쥐고 바람벽에 쾅쾅 쪼아 주며 어미 종달새 노아 준게 무슨 죄냐고 소리쳐 주었습니다.

19) 이렇게 착한 일'군 총각이 어느날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그네 뛰고 씨름할 명절을 며칠 앞둔 날인데 새장에서 놓아 준 종달새가 머리 우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20) 그때 누구인지 척척 벼'모를 꽂아 나가며 《여보게! 일'군 총각 금년 씨름엔 황소를 준다네. 일등을 하게. 진달녀가 그네 상을 탈테니 안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게!》하고 말했습니다.

일'군 총각은 《그건 나무 가지에 물'고기가 열린다는 말과 같네》하고 말했습니다.

21) 일'군 총각은 모내기를 끝마치고 돌아 오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이 끝났다고 하여 어두워가는 논밭에서 바빠하는 일'군을 그냥 두고 혼자 돌아 갈 수 없어서 그 논으로 일 도와 주려 들어 갔습니다. 그 논에서는 진달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벼'모를 꽂고 있었습니다.

22)진달녀는 동쪽 마을 어느 농사집 딸인데 일'군 총각 파는 한물에 자란 손꼽적 동무기 때문에 숭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진달녀는 밭에서는 김 잘 맨다 소문 났고 그네 터에서는 무지개 선녀라 이름났습니다.

진달녀가 일을 일때면 일'군 총각이 들어 주고 일'군 총각이 짐을 질 때면 진달녀가 바쳐 줍니다.두 사람은 이런 사이입니다.

23) 그런데 그날 밤 지주 령감은 진달녀가 일하는 논에 들어 가서 그를 도와 주었다고 일'군 총각을 이놈 저 놈하고 불러 세우더니 내집 밥 먹고 남의 일을 도와 주었다고 노발 대발 했답니다.

그렇지만 일'군 총각은 속으로 《게사니 고기를 먹었는게군 픽픽하기는, 남을 도와 준 것이 무슨 죈가》하고 코'방구를 쳤습니다.

24) 지주 령감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짐 하여 지고 내려 오는데 어찌도 나무'짐이 큰지 산이 걸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그럴 것 없이 산을 떠 지고 오지》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던 동무가 롱담을 걸자 《산을 지고 올래도 지게가 작아서 그럼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동무가 평양에 갔다 듣고 왔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은 듣고도 모를 참 이상한 말이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오락 유희

과녁 맞추기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활 련습을 모방한 놀음이다.

☆만드는 방법

과녁은 합판이나 마분지에 반경 5 cm, 10 cm, 15 cm의 동심원을 그린다.

활과 활촉—40 cm 길이의 싸리'대를 휘여서 활을 만들고 화살은 수수'대 같은 것으로 적당히 만든다. 때로는 활촉 끝을 약간 무겁게 하기 위해 헝겊으로 싸는 수도 있다.

☆노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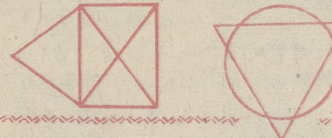
ㄱ, 과녁을 위험치 않은 곳에 세우거나 걸어 놓고 활의 탄력에 따라 쏠 거리를 결정한다. 대략 5 m를 기준으로 하고 좀 더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할 수 있다.

화살은 다섯 개까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중 몇 개를 맞혔는가? 또는 원에 명중하였는가에 따라 점수를 본다.

채점은 중심원에 맞은 것은 5 점, 두 번째 원에는 3 점, 원 밖의 원에 맞은 것은 2 점으로 한다.

2, 경기는 개인전 또는 조별로 대항전을 할 수 있다.

모양 그리기

연필을 떼지 말고 한 번 간 자리를 다시 가지 말고 다음의 모양들을 그려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잠 망 경

1 재료

마분지—한장
거울—2 개
나무 마개—2 개
작은 못 몇 개와 풀

2 만드는 법

ㄱ) 마분지 량쪽 끝에서 그림 ①과 같이 길이 6 cm, 너비 6 cm의 정방형을 오려 낸다.

(ㄴ) 다음 그림 ②와 같이 둥근 통이 되게 만든다.

(ㄷ) 나무 마개는 마분지 통 만큼 굵게 만들되 한 끝은 45도로 비스듬이 만들고 거기에 거울을 못으로 박아 붙인다.(그림 3)

(ㄹ) 그 다음 나무 마개를 둥근 통 량 끝에다 넣고(거울이 구멍 있는 쪽으로 하게 해야 한다.) 못으로 박는다.

3 사용 하는 법

잠망경의 웃구멍으로 물체를 비추고 아래 구멍으로 들여다 본다.

흥미 있는 수풀이

수'자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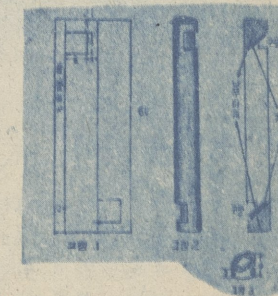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놓여진 수'자를 비여 있는 자리에 밀어 옮기면서 그림 2와 같이 제 순서대로 놓아 보세요 (움직이는 회수는 22 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7	5	6
8	3	2
4	1	

(그림 1)

1	2	3
4	5	6
7	8	

(그림 2)

(해답은 다음 호에)

속 담

☆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이니 정성껏 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는 말이다.

☆ 범굴에 들어 가야 범을 잡는다.

큰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담해야 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말

(왜 그럴가요)

밤에 방안의 전등'불 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왜 한참 동안 잘 보이지 않을가요?

우리의 눈알을 자세히 보세요. 눈알 가운데에 검은 구멍이 보이지요. 이것을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공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량을 조절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공이 작아져서 빛이 조금 눈에 들어 오게 하고 어두운 때에는 이것이 커져서 빛이 많이 들어 오게 합니다.

방안의 밝은 전등'불 밑에 있을 때에는 빛이 강하므로 동공이 작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어두운 밖에 나가면 동공이 그렇게 빨리 크게 열리지 못하므로 한참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동공은 마음대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는 없고 눈에 비치는 빛의 량에 따라 저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속 담

☆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남의 말은 얼핏 보아 비록 들을만 한 가치가 없어 보여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면 어떠한 면에서든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 온다.

사소한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내 버려 두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때에 고쳐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상 문제

일요일에 영남이네 반 동무들은 동식물을 채집하며 뒤'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수길이가 걸음을 멈추고 톱으로 짜른 큰 나무 그루를 열심히 들여다 보질 않겠어요. 동무들은 무엇인가고 모두들 모여 들었지요.

《애들아! 이 동그런 줄(년륜)들은 왜 생겼을가? 또 동그런 줄들의 간격은 왜 모두 같지 않을가?》

수길이가 묻는 말이였어요.

이 물음에 영남이는 훌륭하게 대답을 주었답니다.

어떻게 대답을 주었을가요?

방향 바꾸기

그림은 길이가 같은 나무 가치 10 개로 마든 나비의 모형이예요. 이제 나무 가치 3 개를 떼여서 다른 자리로 옮겨 나비의 방향을 반대로 놓이게 마들어 보세요.

(해답은 다음 호에)

칸 만들기

다음 그림은 길이가 같은 열 세개의 나무 가치로서 같은 크기의 칸 여섯 개를 마들었어요.

이제 열 두 개의 나무 가치로써 같은 크기의 칸 여섯 개를 마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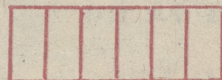
(해답은 다음 호에)

5 호 해답

《어느쪽이 더 무거울가?》의 해답

무게는 똑 같다. 왜냐 하면 거기에 떠 있는 나무는 자기 무게 만큼 물 속에 잠겨 있을 것이며, 물에 잠긴 부분의 나무 체적 만큼한 량의 물을 통 밖으로 넘쳐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넘쳐 버린 물의 무게는 나무 무게와 똑 같다. 때문에 물통의 무게는 어느쪽이나 똑 같게 된다.

《엽서에 뚫린 구멍으로 사람이 빠져 나간다》의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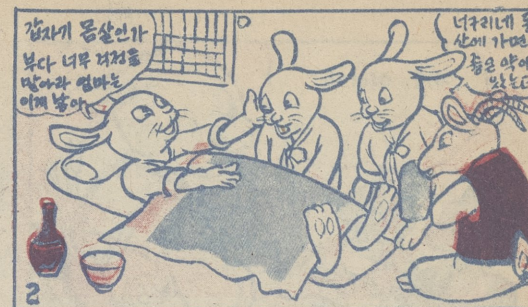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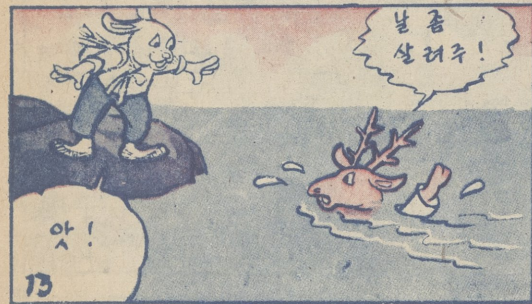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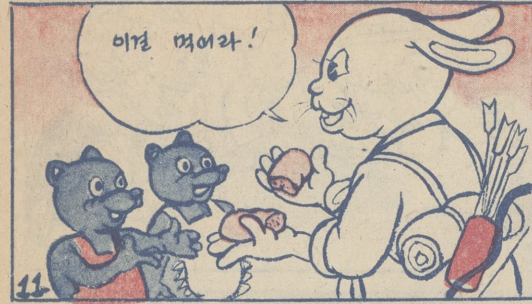
다음 그림과 같이 뚫으면 한꺼번에 두 사람도 빠져 나갈 수 있다.

흥미 있는 문제 풀이 해답

(1) 수길이는 첫 수'자와 마지막 수'자를 합하고($1+100=101$) 마지막 수'자를 2로 나눈 상($100÷2=50$)으로 승하였다. ($101×50=5050$)

(2) 큰 동물—고래
작은 생물—병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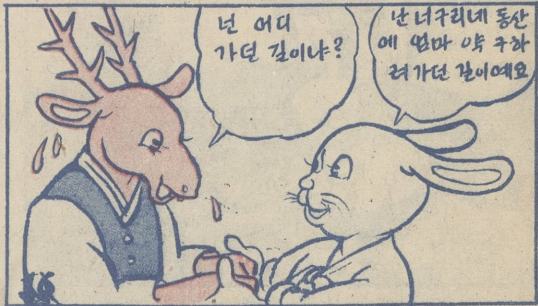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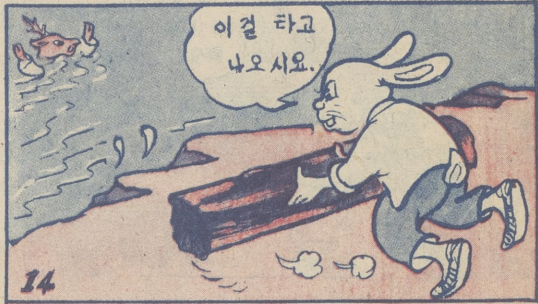
련재 만화 — 원수 갚은 깡충이 (1회)

현 주 그림

왜 그럴가요?

식물의 한 줄기에 있는 여러 잎들 중 한 잎에 먹을 칠하시요.

십 여 일 지난 다음 물로 먹을 씻으십시요. 먹칠하지 않은 잎들은 푸르싱싱하지만 먹칠한 잎만은 하얗게 되였습니다.

왜 그럴가요?

먹칠한 잎은 태양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화 작용을 하지 못한 탓이지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6 호 (총 1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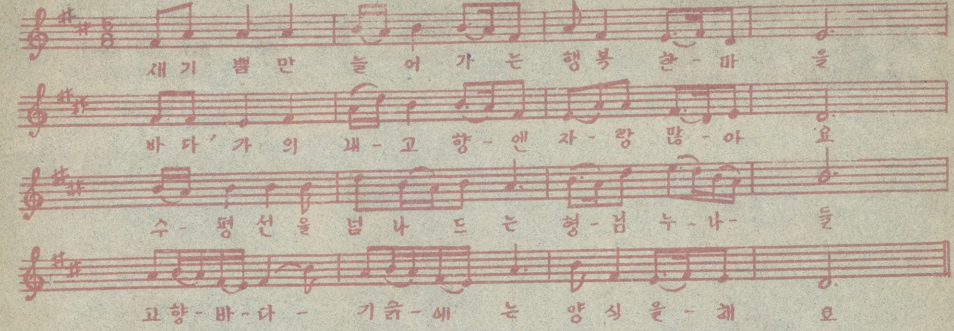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동 평양 인쇄 공장

ㄱ—230293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가야금 병창)

바다'가의 내 고향

김 정태 요
김 승환 곡

2 파도 높은 절벽 아래 깊은 물속에
발을 갈고 미역 곤포 길러 내고요
진주 물결 춤을 추는 얕은 물역엔
덕장마다 참굴들을 주렁 지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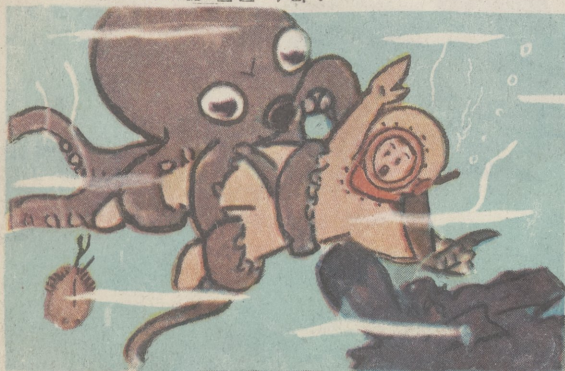
3 우리들도 뽀트타며 헤엄치면서
넓고 깊은 조국 바다 익혀 나가요
풍어 노래 끊임 없는 즐거운 마을
내고향의 새 자랑될 우린 자라요

① 용이—수압이 높으니 잠수복을 입고 전파기를 고쳐야겠군! 그림 박춘삼

② 철이—형! 저 가오리 봐요?
용이—그건 가오리들이 작은 고기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고 몸으로 짓눌러 잡아 먹으려는 거야!

③ 철이—에익! 이놈의 가오리 새끼 고기를 잡아 먹어! 나한데 혼나 봐!
용이—철이야! 가까이 가지 말어!

④ 용이—이 놈의 가시에 쏘이면 사람들도 죽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거든.
철이—응. 그래서 어부들은 가오리를 잡으면 가시를 뽑는 구나!

⑤ 철이—실에 매다니 제법 연 같은 걸!

⑥ 철이—아이구! 형! 형!

⑦ 용이—이놈의 문어 새끼! 내 동생을 잡으려구! 네놈이 아무리 먹물을 뿌리며 도망치려고 해도 나한데는 꼼짝 못 할걸!

(다음 호에 계속)